

“여순사건 유족들은 국가와 화해 원해”

순천 출신 정미경 소설집 ‘공마당’ 10·19연구소의 구술 채록 바탕 산자 부끄러움·트라우마 등 그려 “소설은 고통받는 자 존엄함 알려”

정미경 작가는 지난 2018년 설립된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에서 5년째 유족들의 상처를 채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10·19연구소는 1948년 10월 19일 일어난 ‘여순사건’ 구술채록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진실 규명과 재해석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 작가는 채록하는 틈틈이 한 문장씩 소설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이번에 펴낸 소설집 ‘공마당’ (문학들)은 그런 결실의 산물이다. 강의도 해야 하고 연구소 일을 해야 하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소설을 쓸 생각을 했을까.

“채록을 한 날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둘러 막걸리 한 병을 샀습니다. 녹화된 영상에서 그분들의 말을 옮겨 적으며 나는 한순간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그들을 가슴에 묻고 행여 가슴웃자락 풀며 튀어나올까 봐 속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지요.”

나가 실질적으로 집안을 이끌어왔다는 방증이 다. “그 시절 여성들의 삶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여순사건을 겪은 분들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무게가 씌어져 있어요. 남성들은 그 상처를 어머니나 아내에게 쏟아냈죠. 그렇다고 그 여성들이 고통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뒤로하고 그것을 껴안으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이끌어왔어요.”

이번 소설들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생존의 대가로 남겨진 부끄러움, 트라우마를 모티브로 한다. 비극은 ‘손가락질’로부터 시작됐다. 어린 시절 손가락질로 사람을 죽게 한 트라우마로 정신병을 앓는 엄마를 소녀의 시선으로 그린 표제작 ‘공마당’, 순경들이 마을에서 “좀 모자란 놈”을 골라 손가락질을 하도록 한 ‘독사의 뱀가죽’, 고문 끝에 친구의 동생을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금목서’ 등 작품이 그런 예다.

무엇보다 작가의 기억 작업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문학의 윤리가 무엇이며 또한 이야기의 힘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편집을 거치지 않는 낱것의 언어들을 그대로 풀어낸다.

“할때 손가락 사이에서 나는 뱀네. 틀림없이, 그 백설기갑이 흐른 발을. 손살같이 지나가는 독사의 황금빛 뱀가죽을 보대끼 그렇게 본 거여. (중략) 사람들이 나보고 항상 밝다고 하는데 내가 밝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흐른 발 때문이여. 그 흐른 발이 인생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고 진실이여.”(‘독사의 뱀가죽’ 중)

작가는 유족들이 4·3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4·3평화공원 같은 기억 공간을 원할 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순천대 국어교육과 강사로 현대문학을 강의하는 작가는 삶이 힘들 때마다 소설을 읽는 버릇이 있다. “스칼렛 등 소설 속 주인공들은 내게 ‘그것 삶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살아볼 만 하다’고 위로해준다. 소설은 고통 받는 사람들의 존엄함을 알려주며 나아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한편 정 작가는 순천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4년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송3사 소신발언·침묵해설로 공감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최고 시청률

인기종목 중계 중계 관행 여전 반말 해설·전문성 부족 비판도

지난 4일부터 이어진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이 20일 막을 내렸다. 4년 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겨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번에도 메달권에 들지 못한 비인기 종목은 소외되고 인기종목에 대한 지상파 3사의 중계 편성이 여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베이징올림픽은 초반에는 ‘편파 판정’과 후반에는 ‘도핑 파문’으로 얼룩졌다.

지상파 3사 해설자들은 일련의 사건들에 국민과 함께 분개하고, 소신 발언과 ‘침묵’ 해설 등으로 항의하며 공감을 샀다.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과 이준서가 나란히 페널티를 받으며 실격하자 진선유 KBS 해설위원은 “정말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발끈했고, 안상미 MBC 해설위원은 “우리 선수가 있어야 할 자리(결승전)에 없다.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일부 강도 높은 발언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과 과도하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배경제 SBS 해설위원은 남자 쇼트트랙 계주 준결승을 중계하면서 “중국이 무혈입성합니다”, “쇼트트랙 자유이용권을 얻은 듯한 중국” 등 다소 강한 어조로 편파 판정을 꼬집었다.

일부 해설진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중계로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정보전달보다는 출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고성을 지르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KBS 스피드스케이팅 해설위원인 이상화는 ‘반말 해설’로 논란이 됐다.

이상화는 지난 12일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결선에서 차민규 선수의 레이스를 중계하며 “아, 아, 여기! 아, 여기!”, “이여 은메달 잘했다. 잘했다”라며 반말로 해설해 비판을 받았다. KBS에서 칼링 중계를 한 이재호 해설위원과 최승돈 캐스터도 한국 대표팀이 저조한 점수를 내자 한숨을 쉬는 등 빈축을 샀다.

KBS 시청자권익센터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이상화·이재호 해설위원과 최승돈 캐스터의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8일까지 남스르리아의 누적 총 시청률 기준 이번 올림픽에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경기는 40%대를 기록한 쇼트트랙이었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의 지상파 3사 시청률 합은 46.6%로 가장 높았고, 남자 대표팀 5000m 계주 경기가 43.8%, 최민정이 금메달을 딴 여자 1500m 결승 경기가 4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이 나온 스피드스케이팅은 30% 안팎의 시청률을 보였다. 김민석이 동메달을 획득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경기 시청률 합은 30.9%, 차민규가 은메달을 딴 남자 500m 경기는 26.9%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15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 도중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겠다니...국민의힘 규탄”

광주민예총 등 10개 예술단체

광주민예총, 한국민족협회 등 지역 10개 예술단체는 “문화계를 좌파 우파로 구분 짓고 또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발표한 설명서에서 “블랙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차별과 배제가 이뤄진 구체적 사실들이 밝혀졌음에도

책임이 있는 국민의 힘은 사과를커녕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이념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문화예술계에 좌파가 많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거론되어야 할 본인네 좌파들의 네거티브 프레임에 씌어 공격당해 어처구니없

다. 특정 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문화예술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예술단체들은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짐에 심히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우리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예술인 모두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9473인과 한 목소리로 정의로운과 민주주의에 대해 주장한다”며 “표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은 예술인들로서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더불어 예술인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훈아, 데뷔 55년 기념 신곡 발표...“모두 보듬는 선물 됐으면”

‘일곱 빛 향기’ 22일 공개

‘가황’ (歌皇) 나훈아(사진)가 활동 55년을 기념해 신곡을 선보인다. 소속사 예아라-에소리에 따르면 나훈아는 이달 22일 새 음반 ‘일곱 빛 향기’를 공개한다. 음반에는 ‘맛짱’, ‘누랑’, ‘친정엄마(아내의 엄마)’, ‘사랑의 지혜’, ‘매우(梅雨)’, ‘곤(미련 곱랭이)’, ‘체인지’(Change) 등 총 7곡이 담길 예정이다. 나훈아는 음반이 발매되는 22일 낮 12시 유튜브를 통해 ‘맛짱’ 뮤직비디오도 선보이고 25일에는 ‘체인지’ 뮤직비디오도 공개한다. 나훈아는 소속사를 통해 “55년의 짧지 않은 세월이 건만 나는 여태 끝 끝에서 음악을 만지고 있다”며 신곡 발표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쌍촌지점 062)381-6551~2 | 유동지점 062)512-1984~5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동운지점 062)528-2640~2 |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농성지점 062)361-4472~4 | 운암지점 062)527-3295~6 | 비틀지점 062)381-1971~2 |
| 용산지점 062)526-0222~3 | 화정지점 062)372-0421~3 | 동림지점 062)513-8521~3 | 유덕지점 062)373-3235~6 | 운천지점 062)371-2772~3 |
| 지평지점 062)381-8212~3 |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